

타협이나 확전이나...이번주 미·이란 '개전 후 첫 대좌'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오일 쇼크'를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번주 종전 문제를 논의하는 첫 대면 협상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압도적 화력 공세에도 이란은 드론,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활용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물러나기를 압박 중이다.

공습만으로는 이란을 꺾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지상 병력 동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미국, 이란 간 이번 협상이 극적 타협일지, 아니면 확전일지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번주 J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윌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만나 종전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사된다면 지난달 2월 28일 개전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첫 대면 협상이 된다. 협상은 이란의 우호국인 파키스탄의 적극적 중재와 주선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정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미국과 이란 간 직접 대화 모색 움직임은 양측이 상호 민간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 타격을 위협하면서 전쟁 피해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극도에 달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가 23일 돌연 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언론과 만나 윌코프 특사 등 미 대표단이 이란 최고 위 인사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번주 이란과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매체 역시오스는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여론을 살핀 듯 갈리바프 의장

본인이 나서 이런 보도를 부인했고, 이란 당국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경론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란도 최소한 미국과 간접적 소통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우방국들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란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쟁 주요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반응도 미국과 이란이 대화 모색 국면에 접어든 것이 사실임을 시사한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으면서 미·이스라엘 연합군이 거둔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 이익 보호를 위한 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대화가 자국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정권 교체'까지 공공연히 거론했다는 점에서 현 단계서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시 목표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볼

밴스 부통령-이란 고위급 대면협상 추진"...지상전 확전 위기 속 출구 모색

세계경제 대혼돈 우려에 '발전소 폭격 보류'...'모즈타바 인정·호르무즈 공동관리' 시사도

트럼프, 여전히 '해병·공수부대 카드'로 "호르무즈 열어라" 압박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정치적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고, 금융·자본 시장이 출렁이는 등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유가 등 물가 급등으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일제히 넘고 있다.

인플레이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커녕 금리가 도리어 상승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이중 호르무즈 일대 이란 연안이나

측의 분쟁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이 우리농 농축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화가 틀어질 경우 이란을 더 강력하게 공격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군은 약 5천명에 달하는 해병원정대를 이란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가운데 18시간 안에 세계 어느 전장에든 도착할 수 있는 약 3천명의 정예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보도했다.

이란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 작전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투입될 것으로 거론되는 약 2천500명의 제31해병원정대 병력은 가장 먼저 일본 주둔지를 출발해 약 일주일이면 중동 작전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지상군 결집은 중동 전쟁 판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란에도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이 이뤄지기 전인 향후 닷새가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결정적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 체계...추경,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과감하게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된 대비책을 철

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찌 정유사의 기밀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 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른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이재봉 기자